

폭설 속 운송 내몰린 화물차 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카캐리어 기사 광주에서 목포까지 악천후 속 운송...하역작업 중 추락사 노조 "기상악화에 배송연기 요청했지만 현대글로벌비스가 배차 그대로 진행" 회사측 "출발 전 배송 보류 메시지 통보했다"...기사들 "적극 제지 했어야"

폭설로 인한 안전 사고를 우려해 운송을 늦춰달라는 화물차 노조의 요청을 위탁업체가 거부하면서 물류운송에 나섰던 화물차 기사가 하역과정에서 추락해 숨졌다. 현대차그룹 소속으로 물류 수송 전담 회사인 현대글로벌비스가 물류 운송에만 매달리면서 운송 기사가 사고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화물연대측은 폭설로 인한 악천후로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배송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글로벌비스측이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 카캐리어지회에 따르면 카캐리어(차량을 배송하는 화물차) 기사 A(75)씨는 지난 12월 30일 밤 9시 10분께 목포항에서 하역작업 중 화물칸 2층(3.5m)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추락 당시 광주시 서구 기아차 2공장에서 목표항으로 운송한 차량 6대를 내리려고 적재함 2층으로 올라가 차량을 하역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운송기사들이 노조원으로 소속된 화물연대측은 악천후에도 운송을 강요하면서 빚어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이 지난 12월 30일 기록적 폭설이 내린 데 따라 글로벌비스 광주사업소 측에 '오전부터 눈이 많이 와 차량운송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기상 상황을 보고 있다. 현재는 운송을 진행해달라'고 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글로벌비스 광주사무소는 기아차로부터 운송요청을 받아 자신들의 하역업체인 4개의 운송사들을 통해 108명의 카캐리어 기사들에게 일감을 나눠주고 있다. 지난 30일에도 오전 7시부터 배차를 진행, 화물 기사들이 운송을 진행했다.

이날은 오전 6시 10분부터 광주-목포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노조측은 "글로벌비스 등의 운송요구를 거부하면 분기별로 진행되는 업체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긴다"면서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운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또 "오늘 기상이 좋지 않아 미뤄줬다가 쉬는 날인 1월 1일, 2일에라도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원정인 글로벌비스측은 차를 운송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스 측은 사고기사가 출발한 시간은 오후 7시 20분께로,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운송사측에 배송보류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2월 30일 오후 5시30분에 배차 운송 요청을 받아 상차작업을 마친 뒤라는 점에서 글로벌비스측 배송 보류 문자는 A씨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화물 기사들은 또 운송보류 내용도 단체 메시지방에 올리는 게 전부터 자칫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날 단체방에는 오후 6시 36분에서야 '오후 5시 7시 운송관련 공지'라는 이름으로 배송을 다음날



지난 30일 밤 9시 30분께 광주에서 목포로 차량을 운송한 뒤 복귀하던 카캐리어 화물차가 동광산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눈길에 미끄러져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광주 카캐리어지회 제공>

하리는 문자가 올라왔다. 화물기사들은 "위험한 작업인 상하차에 보통 30-40분이 걸리고 상하차 작업에는 휴대전화를 확인할 여력이 없다"며 "악천후에 배송보류라면 적극적인 제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하역업무는 운전기사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비스 등이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기사들에게 상·하역을 강요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는

안전 담당자도 없어 추락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는 것이다. 글로벌비스 관계자는 "글로벌비스는 물론 운송사들도 각자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면서 "시스템과 안전 관리에 구멍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 카캐리어지회는 사고와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금은방 절도, 범인은 경찰

도박 빚 시달린 서부경찰 경위가 얼굴·차량 번호판 가리고 범행...경찰 탈선 잇따라

현직 경찰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감싸고 금방에 침입,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불잡혔다.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음주 단속을 피해보겠다고 차량을 놓고 달아나는 등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도박 빚을 갚겠다고 직접 금은방까지 타는 경찰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몸집과 권한을 키우면서도 감시·견제 기능을 마련하는데는 둔감한 것이냐는 지적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의 경찰서 출입을 통제·제한하는 '공보규칙'까지 마련, 갑자기 시행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에 알려진 경찰관 범죄 상당수가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칫 공보규칙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남부경찰은 7일 금은방에 침입,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광주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 소속 A경위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께 미리 준비한 도구로 금은방 문을 부수고 1분 만에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이 얼굴

을 가리고 금은방에 쳐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가 하면,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폐쇄회로(CC)TV를 피해 돌아다니는 등 범죄자와 같은 행동을 하다 불잡힌 것이다. 경찰은 수억대 도박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A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에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뒤늦게 자백하는가 하면,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기소되는 등 비위 행위로 적발된 경찰이 잇따랐다. /김민식 기자 mskim@kwangju.co.kr



음성 판정 환자들 다른 요양원 이송

광주 북구 에버그린 실버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 중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 20여명이 7일 오후 다른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 의료차량에 타고 있다.

'100억원대 채취권 분쟁' 장흥 회진 새조개 어장에 난데없는 타지역 출신 해녀들 출현...지역어민 반발

장흥 회진 앞바다에 난데없는 해녀(나잠) 수십 명이 출몰했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 채취를 위해 모여든 해녀들로, 가족이나 어장주인 어촌계와 채취권을 가진 잠수기조합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온다. 6일 장흥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제주, 전북(부안), 충남(태안) 출신 해녀 수십여명이 장흥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나잠어업신고를 획득, 새조개 채취에 나섰다. 해녀들은 허가받은 곳 이외에 장

흥군이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예정인 해역까지 침범해 마구잡이 새조개를 채취하고 있다는 게 지역 어민들 주장이다. 앞서, 장흥군은 지난해 12월 28-30일 3일간 22명의 해녀들에게 향후 5년 간(2025년 12월 30일 까지) 관리수면 지정 승인 예정 해역을 뺀 공유수면의 어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나잠어업신고 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 문제는 회진면 신덕어촌계가 새조개 채취와 관련, 여수잠수기조합과의 분쟁으로 '관리수면' 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해녀들까지 새조개 채취 문제에 연루되면서 자칫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녀들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작업을 했다는 입장으로 바다에 선이 그어지면 아니냐 명확하게 확인하기도 애매하지만 어민들은 새조개 채취 해역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녀들의 구역 침범이 빈번하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조사결과, 지난 1일부터 새조개 채취에 나선 이들 해녀들은 신덕어촌계에 적발 현재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장흥군은 이들 나잠어업 채취자들과 앞으로 여수잠수기조합간 채취를 둘러싸고 채취분쟁과 해상폭력에 대비, 광주지검 장흥지청과 완도해양경찰에 협조요청을 하기도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채본부장 kykim@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